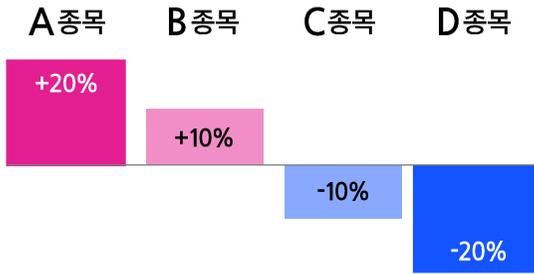


시장은 오르는데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그대로인 이유

Vol 03 | 2026년 3월 첫번째 주

1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매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급하게 한 종목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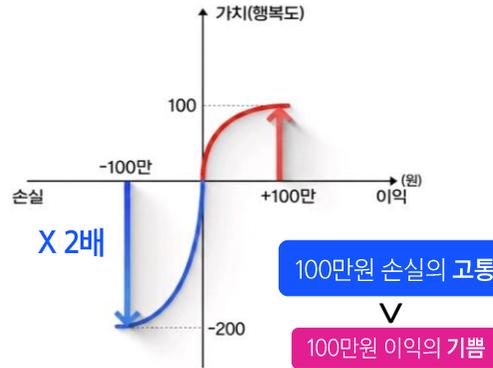


대부분의 투자자는 A 또는 B, 즉 수익이 난 종목부터 팔겠다고 답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투자자의 약 60~70%가 같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는 수익이 난 종목은 서둘러 팔고, 손실이 난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처분효과****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EBS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

2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2배 큼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철저하게 비대칭적입니다. 똑같은 100만원 이라도 **수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확정 지을 때의 고통이 약 2배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만약 코스피 6,000 시대에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처분효과’**에 의해 편향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뇌의 착각을 이기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

구분	개별 주식 직접 투자	대표지수 ETF 매월 적립식 투자
투자 결정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정해진 룰에 의한 시스템화
매매 횟수	많음 (감정 개입 여지↑)	적음 (감정 개입 여지↓)
처분 효과 가능성	처분 효과 가능성↑ (상승시 조기매도, 하락시 보유 지속)	처분 효과 가능성↓ (기계적 매매)

감정에 치우친 매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에서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이기 때문인데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매매가 잦은 개별 종목 보다는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 전체를 담은 대표 지수 ETF를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는 것. 이것이 처분효과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천 PICK!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에 참여하는 방법

Kodex 200 ETF

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대표지수 ETF

②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큰 순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ETF

* 2026년 2월 28일 기준, 한국거래소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 합성총보수 : 연 0.1615% (운용 0.124%, AP 0.001%, 신탁 0.010%, 사무 0.015%, 기타비용 0.0115%)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283% 발생,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합성총보수 ·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2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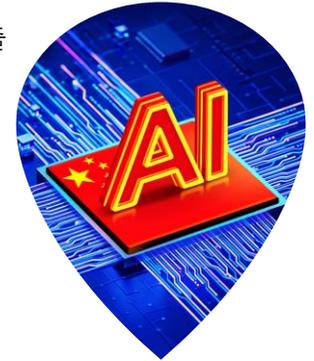
- 3차 개정 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
- 국내 증시 리레이팅 기대: 앞서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더불어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관련 기업 재평가** 기대
- 실적-정책-유동성 삼박자 완성: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필두로 **수출 기업 이익 전망치 상향**,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국내외 자금 구조적 유입**, 고객예탁금 100조원 돌파*로 **풍부한 유동성**까지 국내 증시에 우호적 환경 조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2026년 2월 24일



*자료: 한겨레신문

제재가 낳은 자립 - 중국, AI 전용 반도체 국산화 가속

- 기술 제재의 역설: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
- 국가 총력적 수준의 자본 투입: 시진핑 정부는 **AI 기술 자립에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 중,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도 '25~'27년 **AI Capex 투자 160조원 규모 확대*** 진행 *자료: Morgan Stanley, 기준일: 2025년 10월 21일
- 2028년, 중국 AI 자급자족 실현 전망: 2026년 중국 AI칩 자급률 38%에서 **2028년 100% 도달 전망***하며, 중국 내 AI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 *자료: Bernstein, 메리츠증권, 기준일: 2026년 2월 3일



신규 상장(2월 26일)

FOCUS ①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 (0153K0)

- 새로운 고배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선별하여, 관련 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증가 기업
-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 속 긍정적 주가 흐름 확대 기대되는 고배당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ETF
- ※ 총보수: 연 0.330% (운용 0.28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20%),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향후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준일 2026년 2월 28일

FOCUS ② Kodex 차이나AI반도체TOP10 ETF(0162L0)

- 미-중 AI 패권 다툼에 따른 중국 정부 AI 전략의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기업 선별
- 중국 내 AI 네트워크·AI 서버·AI 네트워크·AI 메모리칩·생산/장비 등 AI 관련 밸류체인 기업 집중 투자
- ※ 총보수: 연 0.550% (운용 0.509%, AP 0.001%, 신탁 0.03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향후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준일 2026년 2월 28일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